현불뉴스

종무지도 감사 실시

조계종 총무원은 오는 10월1일부터 11월1일까지 한달간 종회와 합동으로 종무지도감사를 실시한다. 총무원은 이번 감사기간동안 교구본사와 특별분담금사찰 및 직영사찰, 관람료사찰 등 98개 사찰을 감사하며 모범사찰 지정 표창할 예정이다.

경남불교협의회 출범

경남불교협의회 창립법회가 지난 21일 창원호텔에서 경남지역 21개 시군구 주요사찰 대표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남불교협의회는 이날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에 목산스님(통도사 주지) 상임고문에 성법스님(해인사 주지)과 철형스님(쌍계사 주지)을 추대했다.

제주종교협 23일 창립

지역 종교인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지역사회발전의 토대를 이루게될 '제주종교협의회(공동대표 혜연스님·정한진목사) 창립총회가 지난 23일 영산 등산로 주차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환경선언문' 발표와 함께 환경보호 등반대회가 실시됐다.

실천승가회 수련대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대표 지선·청화) 수련대회가 오는 10월 1~2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과 파주 보광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수련대회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전신인 정토구현전국승가회가 출범한 이러 펼쳐온 10년동안의 한국불교운동를 평가하고 사업전개를 위한 의견수렴의 자리로 마련된다.

결손가정 후원자 모집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오는 10월3일 대전 장태산에서 결손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간담회 및 야유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웃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공유할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042)633-1143

산재대책촉구 농성

"지난 14일 조계사에서 농성중인던 농민회총연맹 소속 회원들이 해산하자 이번에는 한국통신노동조합 소속 114전화번호 안내 1백여명이 신종 직업병인 '정견완장애'에 대한 회사측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노인상담전화 개통 053-4277-114

"말벗 돼드릴께요"

대구불교복지회 5일 개설 밀양에 30평 주거공간 마련

불교계 최초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상담전화가 개설됐다. 대구 불교사회복지회(회장 지도스님, 대구 자비의 전화회장·동화사 포교국장)가 지난 5일 노인상담전화(대표 우재현 교수·053-4277-114)를 개설, 가정적·사회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주고 있는 것.

이로써 대구에는 청소년과 주부를 주된 대상으로 자비의 전화와 노인상담전화가 병존하게 됐으며 보다 전문성을 띄게 됐다. 노인상담전화는 지난 5월 한달간 상담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3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교육에서는 우재현교수(대구대 산업복지학과), 김태영교수(경북대 사회복지학과)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노인문제, 상담기법에 관한 심도있는 강의를 펼쳤다.

현재 걸려오는 전화는 매일 평균 2~3통 수준. 김영무 불교사회복지회 사무국장은 "홍보부족에다 전화하는데 익숙치않은 노인들의 특성때문에 아직은 걸려오는 전화가 많지 않다"며 "상담을 하다보면 노인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상담전화에서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각 구청으로부터 독거노인들의 명단을 받아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이다.

또한 소외되거나 의질할 곳 없는 노인들의 안식처를 위해 경남 밀양에 30평규모의 주거공간도 확보한 상태다.

이외에도 지난 6월부터는 노인무료건강 상담(상담원: 이장백 내과의원 원장)을 시작했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달성공원에서 우묵, 감주, 떡 등을 무료로 대접하고 있다.

한편 노인상담전화가 속해있는 불교사회복지회는 지난 90년 2월 소년소녀가장을 돕기위해 설립된 '나눔후원회'가 발전한 단체. 95년 12월 현재 소년소녀가장 3백40명에게 2천1백50만원이 지급됐다. 현재 이 단체에는 4백여명의 후원자와 40여명의 자원봉사자 및 10명의 사회복지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불교사회복지회장 지도스님은 "불교와 복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자식이 있으나 소외받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유료·실비양로원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불우이웃에게 좀더 체계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복지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스님은 "현재 대구시내 22개 복지관중 불교계가 위탁운영하는 복지관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스님은 오는 10월10일 수성구 범물동에 불교사회복지회와 연계성을 띄는 불교사회교육원도 개원할 예정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사찰경제 실무자 윤리성 확보" 제기

선우도량 수련결사…공동대표에 현봉스님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현봉) 제11회 수련결사가 지난 16,17일 남원 실상사에서 '미래사회와 사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40여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이번 수련결사에서 정견스님(심복사 주지)은 "사찰경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실무자의 윤리성 확보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또 정견스님은 "승려복지시책의 미비는 스님들로 하여금 재물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며 "복지차원에서 승려 개인의 경제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수련대회 첫날 개최된 총회에서는 조계종총무원 호법부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사퇴의사를 밝힌 혜담스님의 사표를 인준하고, 새로 현봉스님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정각회 의원8명 증가

두달새…총 49명으로

제15대 국회정각회 의원이 지난 7월 결성 당시보다 8명의 의원이 새로 가입해 49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3일 봉행된 국회정각회 회장단 취임법회에서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한이헌 노기태(이상 신한국당) 권노갑 임복진 조찬영 정한용 최선영(국민회의) 박철언의원(자민련)이 새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국회정각회는 신한국당 26, 국민회의 13, 자민련 9, 무소속 1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반면 현재 스스로 불자라고 밝힌 국회의원은 63명이다.

예비승려 217명 탄생

조계종 행자교육 회향

예비승려 2백17명이 탄생했다. 지난 14일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이 실시한 제11기 행자교육원 회향식 및 수계식에서 남행자 1백 23명과 여행자 94명이 사미(니)계를 받았다. 지난달 30일부터 해인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자교육에는 20명의 행자가 탈락했다.

한편 이번행자교육을 22일까지 진행하기로했으나 최근 해인사종무소와 강원간의 갈등으로 일찍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불교 재가단체 준비위 구성

불자연합·재가회의·대불청 등 24개단체 참가

18일 결성준비 간담회

범불교 재가단체 결성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8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한국재가불자연합 한국불교재가회의 등 24개 단체대표자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재가불교운동의 활성화 방안'(이문옥·재가불자연합 공동회장) '미래불교에 있어 불교운동의 나아갈 길'(박광서·우리는선우 공동대표) '불교청년운동의 방향'(박희택·진각종 청년회장)을 주제의 기조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범불교재가단체 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재일(재가불자연합 집행위원장) 김형균(재가회의 사무국장) 김세웅(불교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이건호(전국신도회 전사무총장)씨를 준비위원으로 위촉했다. 준비위는 이달안으로 추후 일정을 결정한다.

승·재가모임 21세기 불교연합 결성

준비위원장 법조스님

21세기를 앞두고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위한 불교도들의 모임인 (가칭)21세기불교연합이 창립된다.

21세기불교연합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법조)는 지난 18일 창립준비총회를 갖고 회장에 법조(고운사주지)스님을 선출했다. 또한 창립위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창립법회를 10월25일 조계사에서 갖기로 결의했다. 이날 초대회장에 선출된 법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불교연합은 승려뿐 아니라 재가불자도 참여하는 불교연합체다"며 "각 분과위를 활성화시켜 불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21세기불교연합은 문화예술, 사회복지, 포교신행 등 13개 분과활동을 펼치며 지역에 지부를 결성할 예정이다.

창일어린이집 수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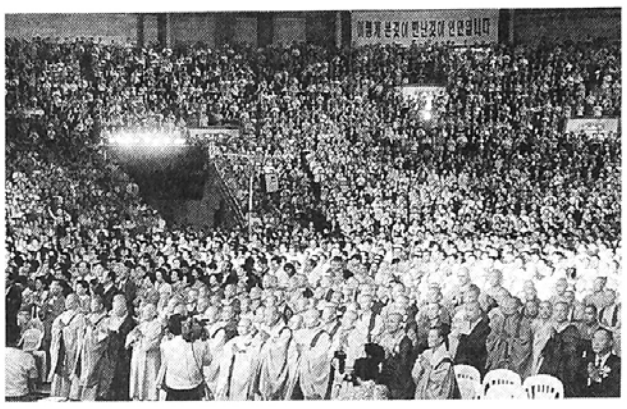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이 지난 17일 종로구청으로부터 창신동 소재 창일어린이집을 수탁받았다.

창일어린이집은 대지 74평, 건평 155.4평의 규모로 1백41명의 영·유아가 보육되고 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학산사회복지관, 길음1동 어린이집, 미아4동 어린이집에 이어 복지재단의 다섯번째 수탁체인 창일어린이집의 개원식은 11월초에 가질 예정이다.

구독신청 : 737-0691



◇ '한마음 인생살이에는 고가 없다'는 주제의 대행스님 법문이 펼쳐지는 동안 대회장은 3만여 불자들의 법열로 가득찼다.

"일체가 나로인해 생겼으니 나로부터 풀어야 합니다"

대행스님 서울법회 3만신도 한마음

불확실해져가는 우리 미래에 확신과 함께 방황하는 젊은이에게 용기와 꿈으로 가득채운 '법열의 한마당'. 지난 15일 서울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사부대중 3만명이 동참한 가운데 '우리들의 미래와 청소년을 위한 대행스님 큰법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성타(조계종포교원장) 월운(동국대역경원장) 태응(불교TV사장) 정락(용주사주지) 광우(전국비구니회장) 진관(진관사주지) 법산(동국대정각원장) 보광(동국대교수)스님 등과 서석재(국회정각회장) 송석구(동국대총장) 조해형(불교방송사장) 김종필(자민련총재) 이한동(국회의원) 이인제(경기도지사) 박철언(국회의원)씨 등이 참석했다.

대형 멀티큐브 2대가 설치되고 고품질의 특수 음향 조명시설로 장엄된 무대에서 2백여 한마음선원합창단의 장중한 합창으로 막이오른 이날 대법회는 대회사(신도회장) 축사(서석재 송석구 이한동 이인제씨)에 이어 대행스님의 '한마음 인생살이에는 고(苦)가 없다'는 주제의 법문이 있었다. 1시간 30분여 동안 법문이 설해지면서 우뢰와 같은 감동의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오는 등 법회장은 법열로 가득 채워졌다.

대행스님은 법문을 통해 "일체가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 나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급변하는 문화와 가치체계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을 바르게 이끄는 도리를 일깨워 주었다.

2부 특별공연은 국립국악관현악단(지휘 박범훈)의 연주와 사물놀이 공연이 힘찬 박수와 더불어공연돼 한국인의 '흥'을 한껏 만끽하면서 음악공양을 올리는 것으로 회향됐다.

법회모금 4천7백만원

파라미타에 전액기증

한편 이 자리에서는 4천7백27만1천8백60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스님은 이날 모금된 기금 전액을 지난 17일 오후2시 조계종 포교원의 파라미타 운동본부에 전달했다.

이 기금에는 한마음선원 소속 스님들이 모금한 1백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회에 정치인들도 참석, 미래를 짊어지고 갈 동량들을 격려했다. 우로부터 김종필 자민련총재 이한동(신한국당) 서석재(정각회장) 김용환(자민련) 이인제(경기도지사) 박철언 구천서(자민련)의원.

한마음행사 이모저모

야외에 멀티큐브 설치

ㅇ…일요일이던 이날 잠실은 '종교열기'로 가득찼다. 불교 가톨릭 통일교의 대형행사가 열린 것. 이 가운데 한마음선원 법회의 경우 실내 법회장에서 다 수용할 수 없자 야외에 대형 멀티큐브를 설치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잔디밭 화면앞에 옹기종기 모여 멀티큐브를 향해 합장하고 박수치는 불자들의 모습은 치열한 구도의 열정을 보여주었다.

자리뜨는 사람 없어

ㅇ…이날 동참한 내빈들은 대행스님의 법문이 1시간 30분여 계속되는 동안 끝까지 경청. 흔히 일반 행사에서 정계인사들은 내빈인사를 마치고 법문이 시작되면 '바쁜 일'을 이유로 서둘러 퇴장하는 관례(?)를 깬 것.

한편 안양 한마음선원이 위치한 경기도의 이인제도지사는 "대행스님께 귀의하고 싶다"는 인사말을 해 주목받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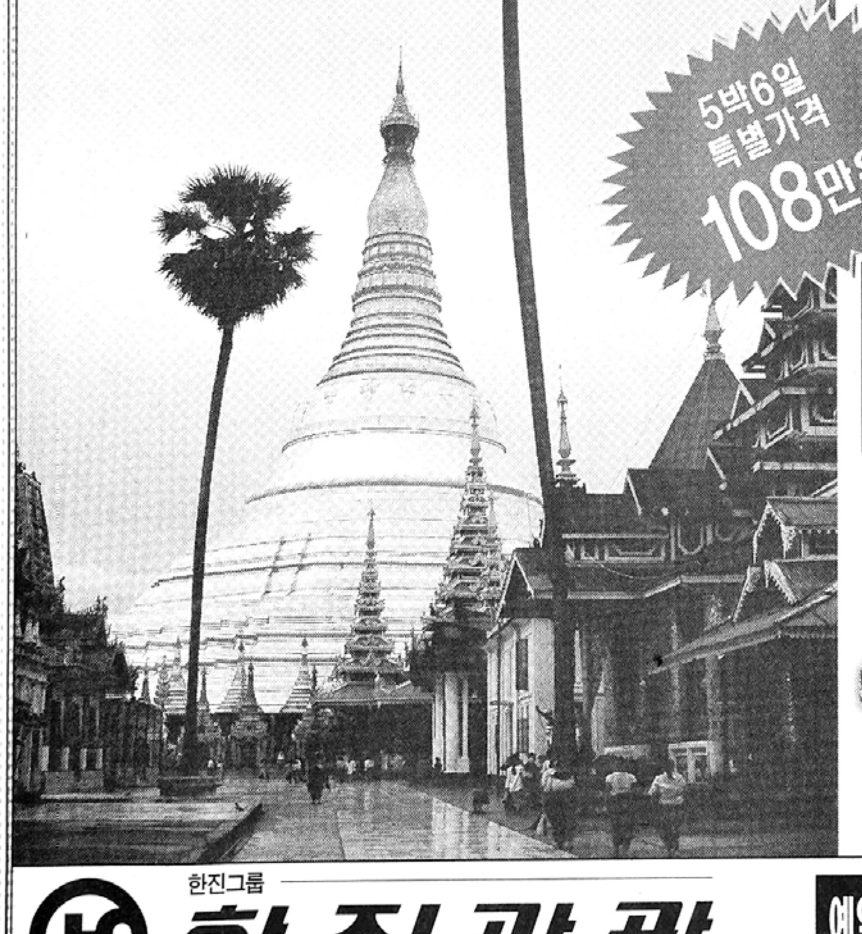
감격의 눈물 '글썽'

ㅇ…1부 법회에서 대행스님 법문에 많은 신도들이 감격에 겨운 눈물을 '글썽'이기도. 이날 제주를 비롯해 광주 부산 등 전국에서 신도들이 동참했으며, 미국 캐나다 독일서도 참석하는 열정을 보였다.

신도들 매너도 '만점'

ㅇ…이날 대법회는 법회 규모도 컸지만 참석신도들의 질서의식도 대단했다는 평. 2부 특별공연이 이어졌는데도 3만의 참석자들은 미동도 않고 국악의 흥겨운 리듬에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 하기도. 이 분위기는 리셉션장으로까지 질서있게 이어져 "과연 '한마음 신도' 답다"는 감탄이 나오기도. 〈란〉

KATA 광고 심의필 ·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 (02)779-6957



5박6일 특별가격 108만원

불기 2540년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KAL 전세기 운항

(관계당국 승인조건)

1차:96.11.1~11.6　2차:96.11.5~11.10

부처님의 마음(佛心)이 살아있는 불탑의 나라 미얀마로 —

사람에게 손이 없다면 비록 보화가 쌓인 산에
오를 지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신심의 손이 없는 사람은 삼보(불·법·승)
를 만난다 할지라도 얻는것이 없으리라
- 심지관경 중에서

여행조건
1. 전일정 식사포함(기내식 포함)
2. 왕복항공권 이코노미석, 전용버스 이용
3. 특급 및 일급호텔 이상 사용 (2인1실 기준)
4. 출발일 7일전 예약마감, 150명 이상 출발
5. 최고 1억원 보상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6. 전문투어 가이드 동행
※ 상기요금은 서울 김포공항 출발기준 요금임.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일정

1일	대한항공편으로 서울 출발. 양곤 향발. 미얀마 양곤의 밍글라돈 국제공항 도착 저녁공양후 호텔투숙. ▪HOTEL : 특급 HOTEL ▪식사: 중-기내식, 석-한식
2일	호텔에서 아침공양후 국내선으로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파간 향발. 도착후 미얀마 최대의 성지이며 2,500여개의 불탑으로 조성된 유적지 순례(쉐지곤, 쉐산도, 탓빈유, 아난다, 부파야, 틴로민로사원) ▪HOTEL : 일급 HOTEL ▪식사: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3일	호텔에서 아침공양후 국내선으로 만달레이 도착 사가잉 이동 (1시간소요). 100여개의 파고다 순례후 만달레이 귀환 쿠소도, 마하간다요수도원, 마하라무파고다 등 순례후 호텔투숙. ▪HOTEL : 특급 HOTEL ▪식사: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4일	호텔에서 아침공양후 항공편으로 양곤 이동. 잔일 양곤지역순례 (마하위지아, 보타타웅파고다, 차욱탓지와불, 마하시수도원) 호텔투숙 ▪HOTEL : 특급 HOTEL ▪식사: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식
5일	호텔에서 아침공양 오전 양곤의 성지인 쉐다곤파고다 순례. 오후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정대법회 (까바에파고다) 및 한.미 불교대법회 후 항공편으로 서울 향발 ▪HOTEL : 기내박 ▪식사: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식
6일	김포국제공항 도착 ※ 성불하십시요

한진그룹 한진관광

예약·문의 726-5763~6

후원 : 대한항공 / BBS 불교방송 · 미얀마 종교성 / 주한미얀마대사관

부산 : 463-2115 / 대전 : 252-2034~5 / 대구 : 426-6706~8 / 광주 : 228-0041~2 / 경주 : 745-3070~3 / 제주 : 42-7217